

# 강소기업 2개사, 전주에 131억 투자

## 씨엔에프·알지텍코리아 투자협약 체결



강소기업 2개사와 투자협약 전주시는 1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의 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홍식 ㈜씨엔에프 대표이사, 공경배 ㈜알지텍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탄소제품 생산 기업과 환경개선제 생산업체 등 강소기업 2개사가 전주에 동지를 본다.

전주시는 19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의 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홍식 ㈜씨엔에프 대표이사, 공경배 ㈜알지텍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으로 항공기와 자동차, 유도무기 내열부품용 탄소 프리품을 생산하는 ㈜씨엔에프는 향후 항공기 및 자동차용 탄소프리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총 82억원을 투자해 팔복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 6452㎡(약 1.951평)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약 20명을 고용키로 했다.

특히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항공기용 탄소복합재료 디스크는 세계에서 5번째로 국산화된 제품으로, 해외 탄소프리품을 적용해오던 것을 국산화로 개발해 납품하고 있다.

또, 양산화 단계에 접어든 자동차 브레이크디스크용 탄소프리품의 경우에도 향후 연간 100억 규모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는 등 잠재성장성이 큰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앞서 ㈜씨엔에프는 지난 2013년 전주로 사업장을 이전해 기존 생산 제

품과 고부가 탄소제품을 함께 생산해 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이스크림 추출기와 가축분뇨 냄새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환경개선제(동물 음용수)를 생산하는 ㈜알지텍코리아는 이날 협약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총 49억원을 투자해 팔복동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약 6737.8㎡)을 인수해 노후한 시설 개선과 공장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총 40명을

고용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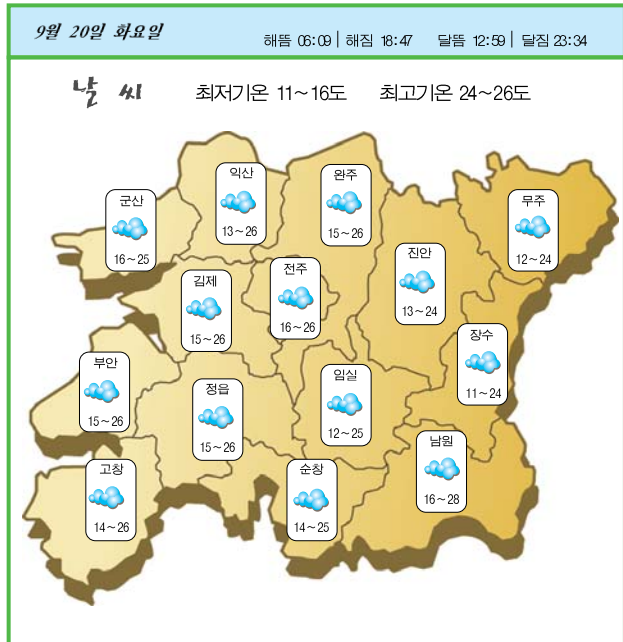
㈜알지텍코리아는 또 기존업체로부터 농촌지역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 냄새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환경개선제 특허권을 인수함에 따라 이번 투자를 통해 환경개선제 자동차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김명지 전주시의회의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에서 기업하기가 잘 됐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 기업은 굉장히 유망한 기업들이고, 강소기업이지만 앞으로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성장잠재력을 큰 기업들이다"면서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기업의 이익은 물론 시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 전북교육청, 학생참여위원 공개모집

### 초 1학년~고 2학년 모집인원 50명 23일까지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제4기 전북학생참여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초 1학년~고 2학년이 대상이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2년 이상 학생참여위원으로 활동했거나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고민형기자

모집 기한은 이달 23일까지다.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응시자가 많은 경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임기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1년이다.

10명은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참여위원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견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초 1학년~고 2학년이 대상이며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2년 이상 학생참여위원으로 활동했거나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고민형기자

#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업무협약(MOU) 체결

## 전주시 대표단,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방문 박람회 행사기획 운영방안에 대한 업무협의 등 협력방안 논의

전주시가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국 창저우시와 쌍무(쌍)로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조봉업 전주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은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를 방문해 창저우시와 이번 산업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력이 나서고 있다.

방문 첫날인 19일 조 부시장은 창저우시 대표단을 만나 박람회 공동개최 및 미래산업 관련 연구와 정책, 정보 교류 등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주시 대표단은 이번 중국방문 일정 중 한·중 국제 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과 3D프린팅·드론 미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의 3D프린팅·드론협회와 협이해 중국의 관련기업들이 박람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 측 행사 주관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과 중국 측 주관기관인 중국아시아 주경제발전협회(중소기업촉진회는 박람회 행사기획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갖는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창저우시도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앞서 지난날 전주시가 제안한 박람회 공동개최 및 창저우시장의 공동위원장 제안을 공식 수락하며 3D프린팅산업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더욱 강력한

한 공조체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한·중 양국 간 상호협력력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주월드컵경기장 특설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 산업박람회 총 3만여명의 방문객 참가를 목표로, 3D프린팅과 드론, 중소기업관 등 총 3개관에 총 400여개 부스의 전시·홍보가 진행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박람회로 초빙해 3D프린팅·드론 정책 및 기술 동향 관련 정보세미나 등 비즈니스 쇼케이스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드론 레이싱·장애물 경기 등 드론 경진대회, 가족과 함께 하는 드론체험존, 드론 직접 만들기 등의 '드론 페스티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재기자

이번 박람회에는 이밖에 전주시 중소기업 발전과 기타 산업분야에 관한 신지식과 신기술 정보교류 등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중소기업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날 24일 한·중 양국 관계기관들과 미래산업 국제박람회 사업을 상호 협조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 산업박람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난날 30일에는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한·중 산·학·연 관계자와 국회의원, 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 기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원회 구성 및 출범식을 가졌다.

/김영재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

### "교사 폭행 학부모·학생, 교육청 직접 고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나 학생은 교육청이 직접 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은 폭행당한 교사가 직접 고소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이를 교사에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민형기자

정육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겠다는 뜻"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고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라북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